

# 광산구청 “비정규직 64명 정규직 전환”

## 전국 지자체론 처음... 임금도 21.5% 인상

광산구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청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12일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정 시간 일한 후 계약이 해지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년보장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동일 업무가 계속되는 데도 11개월만 근무해 하고 그만

두게 강요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범적으로 풀어가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광산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 근로자는 64명으로 11개월 근무 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그 이상을 일하더라도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2년 이상 근무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

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때문이었다.

광산구는 이와 함께 1년 이상 구청 자체사업에 근무한 근로자 가운데 보통직종 근무자의 임금을 1월 3만5300원에서 4만2900원으로 21.5% 인상하고, 가능직종 근로자는 4만3200원에서 5만4900원으로 16.8% 인상하기로 했다. 이들을 중 근무 성적이 좋고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대행업체가 고용하는 환경미화원도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낙찰금액이 10% 이상인 임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구청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민 구청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klee@

# 신안에 ‘갯벌 모실길 1004km’ 조성

## 郡, 51억 들여 77군데에... 생태체험 등 관광객 유치

1004개의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에 ‘갯벌 모실길 1004km’가 조성된다.

신안군은 매년 바다와 섬을 찾는 여행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새로운 생태 관광문화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해 자전거와 도보·산악을 이용, 다도해의 자연경관과 생태·역사·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갯벌 모실길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갯벌 모실길은 신안의 독특한 생태와 문화의 원천인 갯벌을 중심으로 이웃 간의 소통과 화합을 하는 길이며, 신안을 찾아오는 손님을 극진히 모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전라도 방언 ‘모실’에

의미를 두고 이름을 붙였다. 전국에서 가장 긴 해안선과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은 지역 특성을 이용 4개 권역, 20개 섬, 77개 모실길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길은 옛길과 지도 삼압봉 숲길 등 800km(금길 87.4km, 방파제 길 161.8km, 마을길 550.8km)가 있으며, 아직 조성되지 않은 구간 204km는 숲 가꾸기 사업 등과 연계해 자연스럽게 정비하면서 연결해 총 1004km의 갯벌 모실길 코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사업비 51억원을

들여 매년 2개섬, 20km씩 친환경길을 만들 계획이다.

길 곳곳에는 여행객 안내소 등 편의시설과 명품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 여행객이 휴식을 취하면서 지금까지의 이동경로와 앞으로 이동할 거리, 시간 상황, 맵시, 물대, 지역축제, 역사와 인물 등 기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특히 이 모실길은 섬으로만 이루어진 길이라는 독특한 의미가 있으며 여행하는 동안 도보, 자전거, 배편을 이용하고 바다, 갯벌, 모래 언덕, 해송 숲, 칠새 등 다양한 생태환경을 접한다는 점에서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의 ‘둘레길’ 보다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 강희락 前 경찰청장 영장

## 검찰 ‘함바비리’ 수사 이길범 前 청장 소환

‘함바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1일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약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경찰관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1

억10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8월엔 그에게 4000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구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전남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시인했을뿐 대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함바집 운영과 관련해 권의를 바주는 조건으로 유씨에게서 3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혐의가 입증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10년 이상 현장 경력 인정 고졸도 5급 공무원 될수있다

## 임용 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부터 고등학교만 나와도 10년 이상 풍부한 현장 경력을 인정받으면 5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들어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시행되는 민간 경력자 5급 일괄채용 시험의 응시 자격과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한 ‘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행해 온 5급 특별채용 시험을 올해부터 행안부가 공고에서 시험, 부서 배치까지 일괄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지금까지 민간 경력자가 5급에 특채하려면 박사 학위를 따거나 3년 이상의 관리자(팀장 이상) 경력이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 현장 경력을 쌓은 전문가는 학벌에 상관없이 시험에 지원할 수 있다. 석사학위가 있으면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도 응시할 수 있다.

행안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의 특채 수요를 취합해 시험을 공고하고 7월 말 원서 접수를 거쳐 8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시험을 진행해 내년 1월 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빛의만평

- 김중두



넌센스 정부

# 주민 고충 구청장이 직접 챙긴다

## 서구청 ‘직소민원실’ 개소

광주시 서구가 주민의 고충이나 불편사항을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직소민원실을 운영한다.

서구는 “13일 오전 10시 김중식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2층에서 직소민원실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직소민원실은 주민들의 고충 상담과 함께 공직자 및 산하단체의 위법행위나 처분 등을 조사하는 일을 맡게 된다.

특히 직소민원실에서는 민원

인들이 구청장과 직접 만나기 전 관련 부서장과의 1대1 면담을 우선해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게 된다.

이를 위해 서구는 지난 5일 조직개편을 통해 감사담당관실에 직소민원실을 만든 뒤 계장 1명과 직원 2명을 전담 배치했다. 서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구청장 비서실에서 방문 민원을 접수했지만 앞으로 직소민원실이 전담하게 되면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민원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적십자회비 모금 동참 12일 광주 북구 매곡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강당에서 열린 ‘2011적십자회비모금 사랑의 등불 점화식’에서 봉사자들이 특별회비를 모금함에 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성년’ 19세로 2013년 7월부터

2013년 7월부터 성년이 되는 나이가 현재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춰진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년연령을 낮추고 금지산·한정재산 제도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로 변경한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18대 국회 들어 2008년 8월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 등 16명이 성년연령을 낮추는 민법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2009년 법무부안 등 6개의 유사한 법률안이 상정돼 논의돼 왔는데 법사위가 종전의 6개 안을 절충한 법사위원 대안으로 마련해 가결시킨 것이다.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견없이 가결된 만큼 개정안은 이른바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년연령은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3년 7월 1일부터 만19세로 된다. 이때부터 19세가 넘으면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진출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이미 공직선거법의 선거권자 기준이 만19세로 변경되는 등 19세 이상이면 성년으로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감안했다고 법사위는 개정 경위를 밝혔다. 【연합뉴스

티켓몽키에서는  
**매일 밤 11시,  
광주의 모든 곳이  
반값이 됩니다!**

50%~90%

<http://www.t-mong.co.kr>

광주의 대표 소셜커머스  
**티켓몽키**에서 하루에 한가지!  
광주의 모든것들을 **반값**에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입해서 혜택 누리세요.

티켓몽키 입점 문의 070-7581-7766

티켓몽키에서는 광주의 모든 곳을 50%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NAVER 티켓몽키 를 검색해보세요.

2009년~2010년  
**서울대 12명 합격**

중·고 국·영·수 전문학원

양영, 대성의 서울대반 강사진이 직접 수업합니다.  
그룹반은 별도로 상담하세요!!

강사진

- 언어(최복수)의 2명
- 영어(신경찬)의 2명
- 수학(주석진)의 2명

일곡동 국민학원 ☎(062) 574-0101

봉선동 국민영재학원 ☎(062) 672-0483

카카오 지점에서 상담하세요.

식사전 **독소무** 1봉씩!  
“**배변이 힘들고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된다**”

삼성제약 ‘독소무’ 5일 섭취후, 99.9% 몸의 변화 직접확인 가능!

정(腸)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오늘날 정(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시립의 정(腸)내에는 유익한 미생물이 많아 건강한 장, 튼튼한 장을 유지할 수 있다. 삼성제약 ‘독소무’ 5일간만 드셔보면 “속” 편안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배변이 쑥!! 가스도 쑥!! 요즘 ‘독소무’ 덕분에 살 맛 납니다. 흔히 잘먹고, 잘자고, 잘지내면 비교적 건강하다고 말한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잦은 술자리, 불규칙한 식사때문에 설세없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요즘, 매일먹는 삼성제약 ‘독소무’ 때문일까? 그렇게 더부룩하던 속이 막힘없이 후련할 줄이야! ‘독소무’ 먹길 정말 잘했네!

삼성제약 독소무/장(腸)기능성 제품으로 식약청에서 인정하였습니다. (남·여 공통)

살기힘, 가스명수, 우황참시원료로 알려진 삼성제약에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만든 ‘독소무’는 우리몸에 유익한 이눌린, 현미분층배아미강 등 49종류의 100% 자연천연원료로 인체시험을 통하여 식약청에서 공식 인정받은 제품으로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5일만에 끝낸다” 효과 없으면 ‘환불’ 해 드립니다.

삼성제약 ‘독소무’는 심어를 기술여 연구개발한 고급제품으로 5일간만 드셔보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을 직접 몸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효과 보정으로 5일간 드셔 보시고 효과가 없거나 불만족시 당일 즉시 100%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 보증서 발급, 택배비 회수 부담)

제품문의 : 1577-2326 (본사)  
삼성제약공업주식회사 독소무